

## 거룩한방파제, 성평등가족부·낙태 등 7가지에 반대 천명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밝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이 이날 반대 입장을 밝힌 문제는 ①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②성평등가족부, 성(센터)평등 ③성전환 수술 없는 설령정정 ④낙태 전면 허용 및 약물 낙태 허용 ⑤생활동반자법 ⑥포괄적차별금지법 ⑦종교의 자유 침해다.

①에 대해선 대안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성립됨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고,

민법도 역시 혼인의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②를 반대하는 건, 성평등은 '양성평등'

과 달리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용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성평등은 남녀 구분을 폐지하기에, 그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평등이란 이름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③에 대해선 "성별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 성별 변경 절차가 지나치게 간소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성별 변경이 오남용 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법적사회적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성별 구분이 중요한 영역인 병역 문제, 교도소 수감의 문제, 스포츠 경기 출전에서의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권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④와 관련해선,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존엄한 인격체"라며 "인간의 생명은 '원하면' 낳고,



"대한민국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자회견이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상고 기자

'원치 않으면' 쉽게 죽여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임태된 그 순간에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⑤는 "동성결혼(남자 며느리, 여자 사

위) 합법화 초래 가능성" "사생아 비율 급증 우려" "대다수 국민 반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23년 1월 기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32개인데, 예외 없이 유사 생활동반자법을 만든 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며 "프랑스는 1999년 유사 생활동반자법을 만든 후, 사생아 비율이

1999년 42.7%가 2021년 63.5%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63%가 동성간 동거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한 지난 2021년 한국갤럽 조사 결과와 7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 2022년 문화관광체육부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⑥에 대해선,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의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곁으로 ⑦과 관련해선, 최근 김정환·이영훈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현보 목사 구속한 것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를지도라도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글로 쓰고,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며 "다함께 진리를 선포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큰 울림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입법 활동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김운성 목사, 국회 앞 1인 시위 “만삭낙태법”, 국가가 살인 면허 주는 꼴”

12일 '무제한 낙태 허용'

법안 철회 요구



말했다.

김 목사는 그러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겪은 실제 경험을 나누며 생명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다운증후군 의심 소견을 듣고 낙태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판단해 끊을 수 없다고 믿고 끝까지 낳기로 결단했다"며 "놀랍게도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때 낙태를 선택했다면 귀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날 시위에는 라이프워커 청년연대의 최다솔 대표, 이명진 의사평론가, 아름다운과 대표 서윤화 목사 등도 함께 뜻을 모았다.

최다솔 대표는 "인간의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2019년 한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태아 생명을 지킬 법적 장치가 사라졌다.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은 여성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의 최소한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평론가 이명진 원장은 "약물 낙태

는 여성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태아를 살해하는 악"이라며 "생명을 지키는 제약회사가 사람을 죽이는 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유통된다"고 해서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듯, 낙태의 불법 유통을 막겠다는 논리로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윤화 목사는 "낙태는 여성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교회는 낙태 유경험자들을 정죄하기보다 회복과 치유로 이끌어야 한다"며 "악법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생명문화를 확산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운성 목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다"며 "한국교회는 생명의 소중함을 다음세대에게 가르치고, 결혼과 출산을 축복하는 신앙문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낙태 전면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장소에서 이어가며, 생명존중의 여론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를 허용한다면 살인에 면허를 주는 것인가, 생명경시 풍조를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동물을 학대하면 처벌하면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한다는 모순된 현실"이라며 "총을 들지 않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은 전쟁으로 잃은 목숨보다 많다"고

## 북한인권정보센터, 2025 통일·북한인권 인식 조사 발표 및 토크 콘서트 연다

오는 25일 숙명여대  
진리관에서 진행

어선 인식의 확장  
을 이끌어낼 예정  
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오는 25일 오후 숙명여대 진리관에서 숙명여자 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25 통일·북한인권 인식 조사'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숙명여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과 협력하여 진행한 대학(원)생 4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함께, NKDB가 매년 진행하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5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된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진행되는 '북한이탈주민 인식 너머 이야기' 토크 콘서트에서는 북한 출신 청년 여성 활동가, 사업가, 작가들이 참여해, 그들의 생생한 삶의 경험을 통해 경계를 넘

정지동 기자

인천상륙작전 의미 새긴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23면

2025-2026  
강원 봄봄의 해  
Visit Gangwon Year

철원  
CheorWon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1억년, 신비의 세계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철원한탄강 주상절리길 협곡  
다채로운 바위 순암계곡 절벽과 허공 사이를 걷는 아찔한 잔도

변화의 중심  
다시 뛰는 철원

횃불전망대

unesco  
Global Geopark

한한강자연공원  
CheorWon